

第145回國會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會議錄 第25號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3月2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516號室)

議事日程

1. 小委調查活動中間報告
2. 特委調查方法 및 調查日程에 관한件
 - 가.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國際그룹·京南企業·大韓船洲·明星·日新製鋼 및 共榮土建)
 - 나. 人權關聯非理調查(疑問死 10·27法難 및 서울第一教會暴力事件)
 - 다. 日海財團의 設立背景 및 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
 - 라. 새세대育英會 및 새세대心臟財團關聯非理調查
3. 第3小委證人採擇의件

審査된案件

1. 小委調查活動中間報告..... 2面
2. 特委調查方法 및 調查日程에 관한件
 - 가.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國際그룹·京南企業·大韓船洲·明星·日新製鋼 및 共榮土建)..... 4面
 - 나. 人權關聯非理調查(疑問死 10·27法難 및 서울第一教會暴力事件)..... 4面
 - 다. 日海財團의 設立背景 및 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 4面
 - 라. 새세대育英會 및 새세대心臟財團關聯非理調查..... 4面
3. 第3小委證人採擇의件..... 14面

(9時41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民正黨이 不參한 가운데 우리 野 3黨만으로 成員이 되었습니다.

오늘 第25次 會議 開議를 宣言합니다.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中間評價를 비롯해서 政局이 굉장히 불안정 상태로 돌입하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하는 國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요인은 다름이 아니라 現 政府 與黨이 우리 5共特委가 말고 있는 舊時代清算이라는 國民의 염원을 끝내 외면하고 우리 特委의 성스러운 歷史的 課業遂行을 방해하려고 저지하려는 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그 동안 與黨과 더불어서 調查活動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충이 컸던가 아니면 얼마나 보탬이 되었던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野團 3黨 委員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野團이 인내하면서 與黨과 함께 조사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오로지 時代的 반성과 國民的 화합속에 혼란없이 舊時代清算을 이루고자 하는 衷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與黨側은 國民과 우리 野團의 깊은 衷情을 외면하고 결국 特委活動 不參에 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舊時代清算을 저지하려는 與黨의 反時代的 음모는 中間評價라는 이름하에 요즘 노골적으로 그 實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盧政權이 스스로 國民에게 한 약속을 끝내 변질시켜 우리의 신성한 歷史的 課業을 저지시키려는 術策으로 政略的으로 이용한다면 추상같은 國民의 審判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동시에 委員長으로서 이러한 불순한 挑戰을 분쇄하기 위하여 가일층 調查活動에 우리 전부가 박차를 가하겠다는 本 特委의 意志를 천명하면서 委

員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1. 小委調查活動中間報告

(9時43分)

○委員長 李基澤 議事日程 第1項 小委調查活動中間報告를 上程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月22日 第24次 委員會에서 國際「그룹」을 앞으로 全體會議에서 조사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國際「그룹」 整理關聯非理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온 第4小委員會로 부터 調查活動의 中間報告를 받고 그 조사할 사항을 앞으로 全體會議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第4小委員會의 金鍾植委員님 小委活動中間報告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鍾植委員 金鍾植委員입니다.

國際「그룹」 整理關聯非理調查에 대한 第4小委員會의 調查活動 中間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當 小委員會에서는 여섯 차례 小委員會를 열어 調查活動을 하였으나 지난 12月22日 5共非理 全體特委 第21次 會議에서 第4次 小委員會까지의 調查活動을 中間報告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調查活動을 報告드리면 89年1月28日 第5次 小委員會를 열어서 그 동안 國際「그룹」 整理에 있어서 주거래은행의 現況報告와 前第一銀行長들의 參考人으로서의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前國際「그룹」의 실상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진실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국제「그룹」側의 資金需給計劃을 담당했던 유기형 前國際「그룹」상무와 김상준 前國際商事 관리부장과 企業측에서 권철현 전연합철강 社主 연합철강을 인수한 장상태 동국제강會長 또한 당시 國際「그룹」 정리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金滿堤 前財務部長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張慶宇小委員長 朴進球委員 黃炳禹委員 梁性佑委員 金東圭委員으로부터 당시 前國際「그룹」의 資金實相 經營不實 국제「그룹」해체에 있어서 政治權力 介入與否 국제「그룹」의 자구노력 引受社 選定基準 資產評價의 공정성 引受企業의 특혜여부 金融支援條件 등에 대한 訊問에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들었으며 89年1月31日 第6次 小委員會를 열어 국제「그룹」 정리관련비리조사에 있어서 보

확실한 사실규명을 위해 各 黨으로부터 증인 채택 요구자명단을 제출받아 당시 政府側에서 前財務部長官 金滿堤 前財務部長官 鄭寅用 銀行側에서 前第一銀行長 이필선 前第一銀行長 이석주 前韓國商業銀行長 김상찬 朝興銀行長 김영석 企業側에서 연합철강주주 권철현 동국제강회장 장상태 극동건설회장 김용산 한일합섬회장 김중원씨를 證人으로 채택하여 2月20日 국제「그룹」정리와 관련된 證言을 청취하기로 하였으나 證人으로 선정된 10명중 金滿堤 前財務部長官 鄭寅用 前財務部長官 이필선 前第一銀行長 장상태 동국제강회장 김용산 극동건설회장 김중원 한일합섬회장이 89年2月20日 證人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第4小委員會에서는 국제「그룹」정리관련 비리조사에 있어서 사실규명을 위한 證言聽取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 4黨 幹事會議에 그 진행과정을 報告한 후 證言 聽取日字를 순연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그룹」관련사건은 채택된 證人의 證言을 들은 후 종합적인 調查報告書를 작성 추후 全體會議에 報告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까지 金鍾植委員으로부터 第4小委員會의 調查活動中間報告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異議가 없으면 4小委로부터의 中間報告를 접수하는데 별 異議가 없겠습니까?

○崔洛道委員 4小委活動에 대해서 異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金鍾植委員께서 報告한 대로 證人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小委活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特委運營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적당한 핑계를 대가지고 特委에 證人으로 불참하는 것을 기피나 거부로 봐야 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關係法規에서 應분의 對策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證人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警告性을 띤 유감의 표시라도 委員長名義로 하는 것이 앞으로 特委運營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4小委 活動報告에 대해서는 그대로 接受하지만 證人이 不出席했을 때의 對策은 좀 더 우리가 關係法規에 의해서 심도있게 對應하는 것을 모색하고 여기에 대해서 處理해 나가야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崔洛道委員께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特委 調査活動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우리 全體特委에서 앞으로 證人으로서 선택할 사람에 대해서는 出國禁止 요청까지도 政府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決議에 가까운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우리 幹事會議에서 상당히 장시간 論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4小委 中間報告를 接受하고 나서 앞으로 證人採擇 부분에 가서 崔委員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論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春元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林春元委員 말씀하세요.

○林春元委員 지금 우리 崔洛道委員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第4小委員의 상황을 接受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마저 마치고 넘어가는 것이 보다 會議進行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委員長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配布해 주신 油印物에 보면 金斗煥씨나 李順子씨를 13日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尹錫民 大韓船洲會長도 그 날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錫民씨가 지금 어디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3月27日 油印物에 보면 主病國 前外換銀行長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사우디」大使로 既 發令 돼서 나올지가 거의 불투명한 상태고 또 3月29日 證人 가운데 鄭寅用 司空 壹 金滿堤씨는 지금 國內에 없습니다. 鄭寅用씨는 첫번째에도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證人部分 문제라든지 우리가 狀況調査가 가능한지 또 이것에 대해서 委員長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會議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小委의 接受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5共特委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5共特委가 이것 뭐하는 것이냐 하는 비난의 소리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委員長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충분히 討論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第4小委 報告를 우리가 接受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두 분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委員들께서도 여러가지 또 의견이 제실 수도 있겠습니다.

○金令培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議事進行發言하세요.

○金令培委員 필연적으로 崔洛道委員과 林春元委員이 제기한 證人出席問題는 여기에 대한 對策論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議事進行上 여기에서 보면 小委調査 活動中間報告가 돼 있습니다. 지금 立法調査 官한테 물어보니까 第4小委만 報告事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第4小委에서 안고 있던 事案을 全體會議에서 다루게 되는 까닭에 報告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第1小委 第2小委 第3小委의 현재까지의 活動사항은 報告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 두면서 오늘 議事日程 第3項에 보면 第3小委證人採擇 의件도 있습니다.

그러면 證人採擇을 할 때 또 全體會議에서의 證人採擇을 할 때 그 證人들이 어김없이 出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問題와 아울러서 지금 第4小委에서 報告한 證人 不出席問題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옳지 않느냐 이래서 議事進行發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고 議事進行은 議事進行대로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 議事進行發言을 金令培委員께서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林春元委員하고 崔洛道委員하고 양해가 되면 나중에

충분히 지금 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議事日程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에 特委調查 方法이라는 調查日程에 관한 件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證人採擇의 件이 되지 않으면 調查日程이나 調查方法에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이 여기에 내가 具體적으로 더 지적인 않겠습니까하는 지금 金澈鎬씨라든지 張玲子씨라든지 拘束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問題 證人關係가 이것이 되지 않고 證人採擇을 第3 議事日程으로 해 놔는데 그것이 안되면 사람이 없이 누구를 불러다 調查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調查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러낼 사람에 대한 부분 문제를 확실하게 해 놓지 않고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알겠습니다. 林春元委員이 지적하신 사항도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그 議事日程에 맞추어서 함께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하고 걱정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까하는 그리고 또 金令培委員 議事進行發言 가운데 第4小委만 中間報告를 할 것이 아니라 1·2·3小委도 報告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요즘 臨時國會가 있어서 各 常委別로 아마 여러 委員들께서 바쁜 日程에 쪼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小委 委員長인 金 炫委員 같은 분은 오늘 全體會議에 2小委의 報告를 좀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음 또 우리 全體會議을 열때로 미루었습니다.

오늘 全體會議을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미루었다는 사실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春元委員 어떻습니까? 다음 項에서 지금 林委員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다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第4小委의 中間報告를 접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異議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2. 特委調查方法및調查日程에관한件

- 가.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國際그룹·京南企業·大韓船洲·明星·日新製鋼 및 共榮土建)
- 나. 人權關聯非理調查(疑問死10·27法難 및 서울제일教會暴力事件)
- 다. 日海財團의設立背景 및 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
- 라. 새세대育英會 및 새세대心臟財團關聯非理調查

(9時58分)

○委員長 李基澤 議事日程 第2項 特委調查方法및調查日程에관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지난 2月22日 역시 第24次 委員會에서는 國際「그룹」京南企業 大韓船洲 明星 日新製鋼 및 共榮土建의 不實企業 整理關聯非理 그리고 疑問死와 10·27法難 및 제일教會暴力事件의 人權關聯非理를 全體會議에서 調查할 대상으로 결의하고 그 調查方法 및 調查日程 등에 관하여는 委員長과 幹事들에게 委任된 바 있습니다.

또한 日海財團調查 聽聞會에 2次 不參席한 全斗煥證人과 第1小委의 새세대育英會 및 새세대心臟財團 調查에 2次 不出席한 李順子證人에 대해서는 지난 24次 委員會에서 同行命令할 것을 議決하고 同行場所 日時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委員長에게 委任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委任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 2月28日 4黨 幹事會議을 열고 이들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幹事會議에서 民正黨은 여전히 臨時國會에서 特檢制 處理에 관한 결론이 난 다음에 5共特委 調查活動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새로운 調查活動에는 參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民正黨을 제외한 우리 野 3黨은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와 人權關聯非理調查에 있어서 調查方法과 調查日程 등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합의된 調查日程은 여러 委員들께 배부해 드린 油印物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調查對象의 調查方法과 調查日程의 主要骨子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不實企業整理 關聯非理 調查事項에 대하여는 첫째 不實企業整理關聯 政府機關調查班 金融機關調查班 引受企業調查班的 3個 調查班을 구성하여 3月6日에서부터 3月11日까지 6日間 그리고 3月20日부터 3月22日까지의 3日間の 期間동안에 該當 調查機關에 대한 現場調查와 文書檢證 및 不實企業 整理實務關係者의 證言聽取 등을 통해 調查活動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3月13日 14일 하루 쉬고 16日 17日 이상 4日間に 걸쳐서 油印物에 기재된 바와 같이 尹錫民등 17名의 證人을 出席시켜서 1次 不實企業整理關聯 非理調查聽聞會를 開會해서 證言聽取토록 했으며 또한 3月27日 28日 29日 3日間に 걸쳐서 역시 油印物에 기재된 바와 같이 李弼善등 17名의 證人을 出席要求하여 2次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聽聞會를 開會해서 證言聽取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聽聞會등 不實企業 調查活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調查關聯 對象者의 추가 證人訊問과 對質訊問을 위한 聽聞會를 필요하다면 3月30日과 3月31日 가질 예정으로 이렇게 3黨幹事間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를 함에 있어서 調查關聯對象者의 出國 등으로 우리 特委의 調查活動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감안해서 調查關聯對象者의 出國禁止要請을 하도록 지난 第24次 全體會議에서 幹事會議에 要請된 바가 있습니다. 不實企業 調查關聯證人으로 採擇하려고 하는 政策立案 및 執行關聯者와 引受企業人의 핵심적 人士 상당수가 여러 委員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듯이 이미 出國中에 있고 혹시 앞으로 證人으로서 出國한 人士들에 관해서 出國禁止要請이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또 반면에 그 個人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이렇게 고려를 해서 幹事會議에서는 이 問題에 대한 次善策으로 最善策은 못됩니다. 次善策으로 證人으로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 즉시 예를 들면 27日 28日 29日에 證人으로서 參席할 분도 오늘 여기에서 확정되면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本人에게 聽聞會 出國要求를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聽聞會에 出席을 반드시 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취지의 서한을 함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次善策 정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出國中에 있는 證人에 대해서는 앞으로 個人들 情報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討論過程에서 우리가 서로 걱정을 함께 해 봅시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소위 歸國해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書翰을 發送하고 政府에게도 協調要請토록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報告 말씀만 드리고 그 具體的인 事項 특히 林春元委員이 지적한 個人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情報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더 積極的이고 具體的인 出席方法이 있으면 함께 論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報告 말씀을 다 듣고 問題點은 여러 委員들께서 지적을 하고 是正을 하고 解決策을 提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人權關聯非理調查事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人權關聯非理調查도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와 마찬가지로 그 調查方法은 疑問死調查班 10·27法難調查班 그리고 第一教會暴力事件 調查班 이상 3個의 調查班을 구성하여 3月6日 부터 11日까지 6日間 및 3月20日부터 3日間の 期間동안 해당 調查對象機關에 대하여 이 調查對象機關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맡겨 주시면 追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現場調查와 文書檢證 및 該當事件實務關係者들의 證言聽取 등을 통해서 調查活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月23日 및 24日에는 疑問死관련 3月25日에는 10·27法難 및 第一教會暴力事件關聯證人을 出席要求하여 人權關聯非理調查聽聞會를 開會 證言聽取토록 하되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對象證人選定은 人權關聯非理調查班과 합의하여 幹事會議에서 追後 결정토록 했으면... 이렇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3月13日 10時에 日海財團設立背景 및 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聽聞會를 開會하여 全斗煥證人의 同 聽聞會 出席要求 및 同行命令狀을 發付하도록 日程을 정했습니다. 역시 同日字인 3月13日 10時에 新世代育英會 및 新世代心臟財團關聯非理調查聽聞會를 동시에 開會하여 李順子證人의 同 聽聞會 出席要求 및 同行命令狀을 發付하도록 日程을

마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늘 新聞紙上을 本人은 직접 接하지 못했습니다마는 各黨 總務線 이라든가 여기에서 全斗煥씨의 聽聞會 出席問題가 지금 幕後에서 절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절충되면 우리 委員會 既 잡아놓은 日程은 자정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으로 幹事會議에서 합의된 特委調査日程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異見을 가지고 계신 委員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性佑委員 말씀하세오.

○梁性佑委員 報告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聽聞會 日程을 보면서 또 앞에 몇 委員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바인데오, 이야기를 삼가하지 않고 한마디 한다면 여기에 採擇된 證人들중에 몇사람이 누가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具體的인 點檢이 있어야 되겠고 나오지 않을 可能性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制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른 委員도 말씀하셨지만 심지어는 出國禁止要請까지도 해야 한다 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특히 不實企業關係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加害者라고 볼 수 있거나 하는 이런 引受에 있어서의 주된 關係役割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참석하는데 있어서 積極性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참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制動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全斗煥 李順子部分인데 全斗煥 李順子の 證人出席問題를 가지고 우리 13代 國會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具體的인 어떤 방법도 없이 막연히 「픽션」의인 방법을 가지고 出席 不出席問題가 끊임없이 論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면 우리 國會가 國民에게 대한 기대를 상당히 저버리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채택되어 있는 證人들이 全員 出席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첫번째는 현재 國內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出國禁止要請을 할

것을 提案하고 또 하나는 國外에 있는 사람도 召喚할 수 있는 방법을 具體的으로 論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姜信玉委員 말씀하세오.

○姜信玉委員 지금 모두들 外國에 있는 證人들을 어떻게 해서 강제로 召喚해서 證言을 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出國禁止를 시켜서 못 나가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역시 지금 出國禁止를 할 수 있는 法律的인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告訴당한 罪를 지어서 嫌疑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法務部長官한테 出國禁止要請을 한다고 하더라도 出國을 禁止시킬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그러면 별 방법이 없고 또 실제로 法律上 그 사람들을 出國을 禁止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法律的인 한계때문에 그 사람들 個人한테 협조 證人으로 채택된 날짜에 반드시 外國에 나가더라도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國民들한테 指彈을 받게 하는 수밖에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法務部長官한테 出國禁止要請을 해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法律的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林春元委員 말씀하세오.

○林春元委員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5共特委調査日程을 오늘 대충 決定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調査할 의지가 있어서 이것을 決定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걱정할 정도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특히 不實企業整理와 관련한 政策立案者들은 그 중에서는 여섯사람중 네사람은 거의 出席이 不可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實質的으로... 그런데 나머지 두사람 데려다 놓고 政策立案이나 政策決定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서 答辯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實質的으로 決定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國內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姜信玉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國民의 指彈을 받는 것에서 끝날 수 밖에 없다 이것 참으로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指彈받는 것은 그만두고 우리

小委가 指彈반을 대상이 될 우려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不實企業整理와 관련한 金融機關長중에는 지금 최근에 이 사람중에 決定的으로 관련한 한 사람은 外國大使로 發令 받아 나갑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앉아 있는 우리가 이 사람 나가는 것을 아무 制裁措置도 취하지 않고 뭘 調查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잘못하면 큰 웃음거리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3月16日 不實企業관련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金澈鎬씨라든가 17日 張玲子씨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拘禁되어 있는 중에 우리 特委에 나와서 證言할 수 있는 保障이 있어서 이렇게 決定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尹錫民씨같은 사람은 지금 피해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이 날짜에 데려올 수 있는 確證이 있어서 決定을 한 것인지 참으로 調查日程과 證人採擇에 있어서 再考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特委가 決定을 해서 執行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公信力과 또 그에 대한 強制執行의 어떤 能力이 있어야지 國會에서 決定해 놓은 것을 오면 오고 안오면 말고 그런 決定을 우리가 여기서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아니냐... 이런 側面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 오늘 중대한 決定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東圭委員 말씀하시지요.

○金東圭委員 3黨幹事들이 합의를 해서 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調查班을 여섯 個를 構成하는 것으로 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野黨만 16명이라委員長 빼고는 15名입니다. 15名이 여섯 班으로 나뉘면 대부분 아마 두 명이 한 班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두 명 가지고 한 班씩 만들어서 效率的인 活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첫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聽聞會 日程을 不實企業 調查를 하면 不實企業을 매듭짓고 人權으로 넘어가야지 不實企業 한참 하다가 도중에 人權關係를 며칠 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 不實企業 立案者들을 불러다가 聽聞會를 한다... 뭐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아주 人權關係를 매듭짓고 不實企業은 그 다음으로 해서 聽聞會를 열었으면 꼭 해서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중간에 人權關係 3日인가 이틀인가 하는 것으로 넣어놓았는데 日程이 나는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協議해서 調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여러 委員들이 걱정을 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이 證人중에 최근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外國에 가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國內에 있더라도 民正黨이 參席 안하기 때문에 間接的으로 얼마든지 뭐 한번쯤 不出席해도 그만이다 이래가지고 빠져나가는 날이면 聽聞會 열어놓고 우리 野黨委員들 망신만 잘못하면 당하는 것아니냐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점만 指摘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朴相千委員 말씀하세요.

○朴相千委員 지금 證人들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對策을 말씀하셨는데 證人이 出席하는 것은 證人 召喚狀을 받았을 때 出席義務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出席要求를 해도 出席을 要求하는 召喚狀이 證人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法的으로는 證人이 出席할 義務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證人出席 召喚狀을 받고 안오는 분은 全斗煥 前大統領과 李順子씨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出席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것 혹시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證人の 出席을 強制하는 方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證人에게 틀림없이 7日前에 召喚狀이 전달되게 하는 방법 그런데 證人이 지금 현재 外國에 가있는 사람은 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出國禁止입니다. 그래서 證人이 出席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5共 特委의 위신추락 나아가 國會의 위신추락을 막는 방법은 첫째는 우리가 證人으로 選定한 사람에게 대해서 7日前에 반드시 本人에게 召喚狀이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모든 法的效果는 召喚狀 傳達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7日前에 召

喚狀이 전달 안되고 나서는 아무런 法的인 出席義務도 없고 또 不出席罪를 적용해서 處罰할 수도 없고 同行命令을 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證人 出席을 요구하는 첫째의 방법은 證人에게 7日前에 本人에게 召喚狀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혹시 證人에게 召喚狀이 7日前에 전달이 되었더라도 證人이 일부러 나오지 아니하고 外國에 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소위 出國禁止制度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法典을 가져오라고 해서 읽어보았더니 出國禁止事由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出國이 大韓民國의 利益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두번째 犯罪의 搜査를 인하여 그 出國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이 둘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出國禁止 要請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出國禁止 要請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出國이 大韓民國의 利益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해서 이것이 해석이 넓기 때문에 우리 證人들에 대해서 아마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法的으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바로 出國禁止 要請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海外에서 수십億弗 상당의 入札을 봐야 할 사람이 우리가 조금 늦게 이것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 시기에 맞추어서 出席을 요구해 가지고 出國禁止를 요청한다 하면 國民들 눈에 國會가 횡포를 하는 것으로 비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出席하는 利益과 海外나 갈 利益을 비교해서 더 큰 利益쪽으로 이것을 運營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證人을 나누어가지고 加害者性 證人 다시말하면 현재는 犯罪者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다는 사실상 犯罪의 혐의가 농후한 사람에 대해서는 出國禁止를 해도 좋겠지만 순수한 參考的 性格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被害者의 性格을 띠고 있는 사람에게 出國禁止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國會의 횡포로 비칠 염려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證人의 不出席으로 인한 5共 特委 내지 國會의 위신추락은 우선 出席要求書가 7日前에 本人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일이고 그중에 加害者性 性格을 지닌 證人에 대해서는 出國禁止를 利益의 비교를 통해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國內에 없거나 이래가지고 여기 證人으로 選定해 놓은 사람중에 出席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全般的인 日程을 한번 더 幹事會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日程과 證人의 대상을 選定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外國에 가있거나 外國大使로 나갔는데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全體會議을 열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다른 委員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盧武鉉委員 말씀하십시오.

○盧武鉉委員 盧武鉉委員입니다.

결국 문제가 집약되는 것이 證人出席에 관해서 과연 여러가지 障礙事由가 예견되지 않느냐 拘禁者도 있고 海外에 滯留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타 非協調的인 여기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같은데 그로 인해서 안나왔을 경우에 國會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全體國民이나 政府나 모두가 法院의 권위를 존중하고 法院에 證人으로 나오니까 裁判이 있는 것이고 그렇듯이 國會의 권위를 國民이 존중하고 또 政府機關이 國會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法律上的 諸般義務를 다 이행하면 國會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인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政府의 積極的인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고 國民의 積極的인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權威가 손상될까 싶어서 사전에 國會가 미리 어려운 일은 피해간다는 방식은 아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무슨 具體的인 對策을 세워놓고 하자고 아마 많은 委員님들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對策의 문제인데 이 對策은 결국

不出席해 보아야 그때 對策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拘禁者에 대해서는 訴訟節次에서는 國會에서의 證人에 관한 法律이 準據하고 있는 訴訟에 관한 法律들에 의하면 拘禁者는 矯導所長에게 通知를 하면 矯導所長이 데리고 나오게 되어 있으나 政府機關의 義務이고 海外에 있는 사람도 오라고 해서 아까 朴相千委員님이 지적했듯이 7日前에 또는 海外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召喚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非協調的인 사람에 대해서는 諸般 法規定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國會活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諸般 法規定들을 專門委員室이나 實務線에서 하나하나 절차를 맞추어 나가기로 하고 일단은 調查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出席이 사실상 되지 않는 부분이 具體的으로 밝혀졌을 때 새로이 出席을 독려해 가는 다른 法律的 방법을 취하면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시 같은 證言을 받아낼 수 있는가를 檢討하는 것은 그때 가서 檢討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3黨 幹事들이 모여서 이런 의논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온 이런 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상당히 되어가지고 그것이 고려되고 결정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幹事會議에서 그 점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해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해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의 뜻으로는 法대로 해 나가면서 장애가 생길 때마다 法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東周委員 말씀하세요.

지금 證人出席部分이 증가 되고 그 다음에 日程部分 같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한정해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同僚委員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론 幹事들이 신중을 기해서 日程을 짰겠지만은 根本的으로 問題點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金東圭委員도 지적했는데 調查班을 6個나 만들어가지고 3月6日부

터 3月11日까지 不實企業하고 人權問題를 調查한다는 것이 사실상 不可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根本的으로 우리가 3月14日에서 16日 17日 이래가지고 不實企業 정리당사 소외자 및 引受企業人에 대한 聽聞會를 하고 그 다음 3月27日부터 28日 29日에 거기에 관련된 政策立案者 金融機關長 執行關係者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人權問題가 3月23日부터 疑問死關聯 法難 및 서울제일교회 暴力事件이 중간에 낀다는 자체도 도저히 委員들 머리로서는 풀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까지나 國會가 國民들에게 告發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事件하나 가지고 일관성있게 調查를 해 나가야 저 사람이 저렇다 나쁘다 이런 관정이 나지 우리 委員들로서는 도저히 머리가 여기까지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에 證人들 採擇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은 인정이 됩니까마는 몇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證人을 한사람한사람 採擇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했겠지만 다시 한번 더 幹事會議에서 사실 5共特委가 어떤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選定을 다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이 聽聞會 기간을 단축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3月14日같은 데 보면 俞斗煥 李順子 尹錫民 尹錫祚 趙重勳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현재 俞斗煥·李順子씨가 안 나온다는 것은 현재 90%의 확률이고 윤석민씨는 事前令狀이 發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月14日 우리가 不實企業에 대한 聽聞會를 한다는 것이 전부 다 알려져 있을 때 과연 윤석조씨하고 조중훈씨 두 사람만 놓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3月14日 보면 梁正模씨 權哲鉉씨 張相泰씨 金用山씨 金重源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小委活動을 해 보니까 그동안 각 小委에서 出席要求를 냈을때 현재 外國에 가 있는 사람이 張相泰씨 金用山씨 金重源씨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시간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것을 하루종일 시간을 뺏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不參席했을 때는 방금 盧武鉉委員

말씀대로 그 때 가서 國會가 關係法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일단 저는 不實企業 이 문제를 3月14일부터 3月17일까지 해서 그 동안에 3月27日 28日 29日하는 것까지 6일을 3일로 축소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그 동안 人權問題는 3月23일부터 3月25日까지 잡아놓았는데 저기에 疑問死도 이틀간 잡아놓았는데 法難事件 중요합니다. 이 많은 法難事件을 3月25日 토요일 하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不實企業을 3日하고 人權問題를 4日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3月25日 1次인 聽聞會는 끝나다 이것입니다. 合同調査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委員長 李基澤 崔洛道委員 發言하시고 그 다음에 趙昇衡委員 發言하시고 그 다음에 委員長이 지금까지 委員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 겸 설명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洛道委員 崔洛道委員입니다.

지금 많은 우려와 좋은 의견들을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與黨이 不參한 가운데 與黨이 特委活動을 기피하고 또 특히 加害者側이 좋아할 그러한 입장에서 5共特委가 運營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與黨이 기피하는 反對하는 5共特委活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5共清算을 해서 國民에게 모는 것을 소상히 알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다시 幹事會議에서 고려하더라도 이것을 미룰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證人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再檢討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盧武鉉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拘束돼 있는 사람은 오히려 證人으로서 採擇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外國에 나가 있는 사람인데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한정 外國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귀

국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귀국할 것인지 한번 그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일정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적당히 핑계대고 안 나왔을 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 國會가 '있는 손상이 크기 때문에 남득할만한 이유없이 안 나왔을 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또 가능하면 關係法에 의해서 고발하고 응징함으로써 우리 特委活動은 與黨이 不參하는 반대하는 계속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일부터 調查活動을 하게 되어 있는데 國會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9日에야 끝납니다. 따라서 이런 調查活動의 시작 또 特委活動의 전반적인 運營日程 또 證人問題를 다시한번 幹事會議에 일임해 주시면 각 黨에서 좋은 의견을 幹事가 수립해가지고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議事日程과 證人問題를 협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野圈끼리만 모여가지고 시급하고 꼭 필요해서 하는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 수용될까 하는 우리에서 委員長과 幹事에게 各黨에 所屬한 委員들이 좋은 의견을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 좋은 意見들을 수렴해가지고 議事日程과 證人問題만 協議해서 조금 調整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方向으로 委員長께서 會議를 進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趙昇衡委員 방금 崔洛道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畧적으로 同意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發言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은 줄이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幹事會議때에 全體會議에서 이것을 通過시키기로 野3黨 幹事가 합의하게 된 經緯는 民正黨 幹事가 애당초부터 앞으로 施行할 5共清算作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할 清算作業에 대해서는 전혀 民正黨이 參與하지 않겠다 하는 意思를 명백하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와같은 聽聞會에 전혀 應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幹事會議는 適法하게 어떤 합의사항을 導出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를 全體會議에서 다루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野3黨 幹事들은 證人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여러 同僚委員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것을 檢討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응 野3黨 幹事끼리 합의된 事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幹事會議에서 더 論議해가지고 決定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聽聞會를 해야 할 時急性에 관해서는 盧武鉉委員이라든가 또는 崔委員 또 金東周委員 이런 분들의 얘기에 全的으로 同意를 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조금 委員長이 說明을 省略할 部分은 省略을 하고 幹事會議에서 있었던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委員 여러분들께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하면서도 동시에 理解不足도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는 日程問題입니다. 두번째는 證人出席問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個 調査班씩 해가지고 6個 調査班이 어떻게 그 많은 事件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證人選定이 조금 잘못된 部分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日程問題입니다. 특히 不實企業聽聞會를 하다가 그 중간에 왜 人權蹂躪關係 聽聞會日程을 잡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가지 理由입니다.

첫째 하나는 5個 企業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不實企業調査를 착수하게 되면 3월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時間的으로 不實企業이 너무 늦다 그렇다고 해서 人權을 맨 처음에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不實企業을 하는 것이 어머나... 人權非理聽聞會는 그렇게 많은 時間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論難이 있었습니다. 論議를 하다가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委員들께서도 다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不實企業 調査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정말 舊時代의 소위 經濟秩序 어떻게 보면 經濟的 惠澤 어떤 權力型 非理

이런 것을 聽聞會를 통해서 國民이 전부 다 알고 저지른 사람이 알고 원통한 사람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聽聞會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不實企業을 일단 예를 들어서 被害者와 加害者의 聽聞會를 하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지금 5個 企業을 한꺼번에 하니까 不實企業이 원체 복잡하고 어렵고 또 問題點이 나올 것이다 바로 또 不實企業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라든가 補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틈에 그냥 우리가 資料를 補完하기 위해서 期間을 좀 두느냐 그 期間 동안에 우리가 고달프지마는 사실 人權關係非理도 사실 굉장히 빨리 해달라고 要請하는 그 당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人權關係를 넣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1次 聽聞會를 했던 것을 좀 정리하는 時間도 갖는 것이 좋겠다 사실 이래서... 그것을 처음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들으면 어떻게 不實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하지마는 또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서런 論議 끝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人權聽聞會가 그 중간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證人出席問題는 지금 우리가 法律的으로 出國禁止要請을 하는 방법과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依法措置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그 당사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國會特委가 하고 있는 이 事項을 사실 愛國的 見地에서 어떤 時代的 課題를 푸는데 협조하는 愛國者가 되었다면 그 사람들 스스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同行命令狀을 발부하든지 어떻게 依法措置할 수 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안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民正黨이 舊時代清算에 不參하고 만약에 證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國會全體의 不名譽라든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들에게 우리 特委에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성실히 다하려고 하고 어떤 外的 요건에 의해가지고 또 방해요건에 의해서 「사보타지」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불가항력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國會次元에서나 다른 法律的次元에서 우리가 解決策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月28日 幹事會議을 하고 오늘 序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 9시에 우리가 全體會議을 한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서두른 會議이 되겠습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바쁘시지만... 그러나 아까 林春元委員께서 솔직한 얘기로 朱炳國씨 같은 사람이 날짜는 정해졌는지 안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外國大使로 임지로 떠날 채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우리 特委에서 이 特委決議事項 아니면 우리 幹事會議 合意事項으로 이렇게 合意가 되고 되었으니까 全體會議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對外的으로 우리가 出席要求를 독려한다든가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全體會議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聽聞會 出席要求日字도 박아가지고 내고 協調要請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8日... 사실 여러분들도 다 政治人들이지만 幹事會議을 하면 비밀도 있을 수도 없고 公式幹事會議의 과정은 言論에도 우리가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證人들이니 뭐니 日程이 다 지금 나갔습니다마는 日程나간 것은 變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나는 委員長으로서 이런 우려를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證人出席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아 이미 어제 그저께 新聞에 난 것으로서 나는 證人으로서 채택이 되었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出席要求書를 시간을 다투어서 내지 않으면 이 자기는 證人으로서 해당된 것을 알고 있는데 日字를 늦춰버리면 사실 그 사람들 「비자」 複數旅券 거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飛行機票 사가지고 가버리고 아니 뭐 급한 일 있어서 나는 通報못받고 가버렸다 이런 식이 되면 여러분들이 證人出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3黨 幹事會議에서 사실 이것 深思熟考했습니다.

그날도 두時間이상 우리 幹事會議에서 이것 놓고 이렇게도 깨닫춰 보고 저렇게도 수정하고 修正修正해서 지금 이렇게 上程을 시켰는

데 이것을 다음 幹事會議로 넘겨가지고 내일 幹事會議하면 또 모래 또한 이들 연기가 되고 이랬을 때 오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미흡하지만 원체 복잡한 日程이 되어서 個個人이 생각할 때는 미흡한 것도 더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通過를 시켜 주시고 아까 委員長報告 말씀에서도 분명히 但書를 달았습니다마는 證人이라든가 이것이 잘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나와야 될 사람들 앞으로 조사하다가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追加證人으로 언제든지 신청도 할 수 있고 하니까 證人部分에 대해서는 우리가 出國을 막고 出席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나는 時間을 빼가지고는 앞으로 여러가지 障害要因을 나타내지 않겠나 걱정이 되어서 지금 몇 委員들이 幹事會議에 다시 日程을 넘겨가지고 우리 全體會議에서 하자 하는 것은 그 의견도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對外的인 野3黨이 모여서 3黨幹事가 합의한 事項을 다른 對外的인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오늘 이것을 通過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周委員 金東周委員입니다.

방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시는 고초나 여러가지 問題點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갑니다.

이래서 幹事會議 合意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방금 特委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이것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잠깐 1·20分 停會를 해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停會를 요청합니다.

○林春元委員 停會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幹事會議 合意해서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異議가 없습니다.

또 아까 어느 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法律的으로 처리가 되어지면 國會의 위신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不實企業整理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안될 것을 뻔히 알면

서 오지 않을 것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國會의 위선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法律的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안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國會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더 더군다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다면 幹事들께서 지금 다시 會議를 해 주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우리가 幹事會議보다도 懇談會를 한번 가집시다. 그런데 林春元委員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特委의 調查日程을 결정해 놓지도 않으면서 海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라 歸國措置를 어떻게 노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證人으로서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그순간부터 우리 全體委員은 말할 것도 없지만 委員長과 더불어서 우리 幹事들이 政府와도 직접 대화를 통해서 강력하게 歸國을 촉구시키고 지금 나가 있는 官吏들도 그렇습니다마는 事業人들도 지금 어디가가지고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特委에서 證人으로서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 뭐 알아보고 빨리 오라고 요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日程을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 급하다 그래서 林春元委員의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停會를 하고 우리 全體懇談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52分 會議中止)

(11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委員들 懇談會를 한 결과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幹事會議에서 여러분들에게 配布해드린 會議日程에 대해서 몇가지를 修正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전에 證人出席問題에 있어서는 우리 전부가 지금 걱정을 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論議하기로 하

고 우선 原案에 보면 不實企業調查班입니다. 이 調查班이 3個가 되어 있고 그 다음 人權調查 3個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民正黨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16人 우리 野 3黨委員으로서는 너무 복잡한 調查班의 구성이라는 指摘事項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調查班數와 構成人員數는 委員長과 野 3黨 幹事에게 委任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調查班은 여섯個를 세로나 네個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各 交涉團體別 構成員은 幹事會議에 委任하도록 이렇게 大體的으로 懇談會에서 合意를 보고 調查班活動期間에 대해서는 6日에서부터 11日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調查班이라는 것은 수시로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확정짓는 것은 현명한 調查方法이 못된다 그래서 日程은 우리가 全體會議期間中 어느 때라도 調查班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訂正을 했습니다.

人權關聯非理調查聽聞會의 期間은 원래 原案에는 23日부터 25日까지로 3日間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논을 해보니까 3日間 가지고는 도저히 날짜가 모자라서 안되겠다 그래서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3月22日 23日에는 疑問死關聯 이틀을 하고 24日 25日 하루를 더 늘려서 法難 및 서울 第一教會 暴力事件 會議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1日間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懇談會에서 原案을 修正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全體會議日程은 이자리에서 여러분들이 委員會에서 決議를 해주시고 나머지 證人問題는 이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별 異議 없으시지요?

○趙昇衡委員 말씀중에 아까 幹事會議에 委任한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 民正黨이 불참하는 幹事會議는 사실상 幹事會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任은 委員長과 平民黨의 崔洛道委員 民主黨의 姜信玉委員 그리고 共和黨의 金 炫委員에게 이 네사람에게 委任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基澤 알겠습니다. 그것도 받아들

여서 여러분들!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염려되는 證人の 不出席에 대해서 어느 委員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梁性佑委員 말씀하세요.

○梁性佑委員 사실 國民의 절실한 염원이 바로 5共非理 척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共特委가 해야 할 이 時代의 역할이란 아주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또 이러한 日程을 잡고 調査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이 民正黨이 全員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委員會에 있어서의 염려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具體的인 것을 앞서도 얘기했지만 證人出席問題가 되겠습니다. 사실 調査委員會 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證인들이 全員 요구대로 出席해 주는 문제입니다.

특히 加害性證人들의 경우 상당히 證人出席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側面이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聽聞會 또는 調査 活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加害性證人들의 경우 出國禁止要請을 당연히 우리 委員會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被害性證人들의 경우는 가능한 協調要請을 충분히 해서 한 사람도 證人出頭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우리 委員會가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加害性證人 및 被害性證인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마는 聽聞會에 불참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력한 法的인 措置가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우리 委員會가 公式的으로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참의 경우는 분명하게 同行命令狀을 발부하고 또 그래도 불참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告發措置를 취한다는 이런 의지표명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는 提案하는 것입니다.

議決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梁性佑委員의 證人出席을 독려하기 위한 모든 法的 措置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委員會의 議決가 즉 우리 委員會의

의지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異議가 없지요? 우리가 議決로서 다시한번 다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議決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聽聞會와 人權關聯非理調查聽聞會를 油印物에 기재된 정정된 日時에 각각 開會하고 그 油印物에 기재된 該當 證人을 각각 出席要求하여 證言을 청취토록 하되 다만 人權關聯證人選定은 幹事會議가 아니라 趙昇衡委員이 아까 지적하신 네 委員한테 委任한다는데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3月13日 10時에 全斗煥證人과 李順子證人의 證言을 각각 청취하기 위한 日海財團非理調查聽聞會와 새세대育英會 및 새세대心臟財團非理調查聽聞會를 13일에 동시에 開會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습니다.

3. 第3小委證人採擇의件

(11時36分)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第3小委證人採擇의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설명말씀을 드리면 이 件은 第3小委에서 三清教育隊關聯 人權非理調查를 위하여 채택한 證人13名 名單은 油印物에 있습니다. 13名에 대해서 幹事會議에서 民正黨에서 일부 證인에 異議가 있어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에게 幹事會議에서 그래서 全體會議에서 결정해야 될 事案이기 때문에 上程을 시켰습니다.

證人採擇하는데 특별한 異議가 있습니까?

金令培委員 發言하세요.

○金令培委員 本件이 第3小委員會 證人採擇의 件입니다.

내용 주문을 보면 중간에 黃永時外 12人을 追加證人으로 채택하여 第3小委에서 證言을 청취하기로 議決하고 幹事會議에 承認을 요청하였으나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아 全體會議에

回附하여 결정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幹事會議에서 小委員會 調查活動方法 1項은 낭독하지 않았습니니다. 2項의 證人採擇 및 證言聽取 關호하고 聽聞會포함 關호단고는 特委全體會議 소관으로 하되 小委에서 證人을 채택 證言聽取를 하겠다는 小委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과 幹事會議에서 合意決定한 바에 따르다 이렇게 合意한 것을 全體會議에서 承認決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第3小委에서 追加證人採擇할 것을 幹事會議에 요청했으나 幹事會議의 合意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承認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이에 따라서 全體會議에서 議決節次를 밝아가지고 承認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本委員도 우리 5共非理調查特委의 第1小委에 속해 있습니다. 第1小委에서 맡아져 있는 事件을 調查할때 證人을 채택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니다.

證人이라고 하는 概念이 뭐냐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公式의으로 國會特別委員會 또는 그 밑의 小委員會에서 公式의으로 어떤 事案을 調查할때 그에 대한 證言臺에 서서 그 訊問에 答辯하는 證言者는 包括的으로 그것이 證人입니다. 그러면 그 證人은 法에 의해서 宣誓를 하고 證言을 해야될 터인데 本委員이 小委活動에서 證言을 받고 訊問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안됩니다. 與黨側에서 反對해가지고 證人宣誓도 없는 가운데에서 訊問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小委에서 어떤 證人採擇하는데 幹事會議의 承認이 않나니까 그 調查活動을 더 진행할 수가 없거나 또 지연이 되는 이런 弊斷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國會가 5共非理調查라고 하는 것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 되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本件은 이것은 承認한다고 하는 決議를 할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幹事會議에서 아까 本委員이 낭독해 드린 그 내용을 全體會議에서 承認하였기 때문에 法律的인 效力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幹事會議에서 합의해서 全體會議의 承認을 받은 그 件을 取消를 해서 全的으로 證人採擇하는 것은 當該 小委員會 自律에 맡긴다 이렇게 議決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自動的으로 풀리고 또 第3小委 뿐만 아니라 4個小委가 있는데 모든 小委에서 證人採擇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事件調查하는데 신속하게 하는데 어떤 障礙 걸림돌이 除去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正式으로 動議합니다.

○盧武鉉委員 옳은 말씀같습니니다. 再請합니다.

○姜信玉委員 아까 懇談會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니다마는 지금 小委員會가 앞으로 할 활동이 三清教育하는 3小委活動 밖에 없습니니다. 앞으로 小委活動이 지금 모든 것을 全體會議에서 하도록 決議해 놓고 하는 판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決議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른 小委가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니다.

○金令培委員 그런 문제는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小委活動이 없다 이렇게 斷言해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3小委가 진행중이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幹事會議에서 이것을 합의 못해 줘니까? 그래서 3小委活動이 그만큼 中止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矛盾性을 우리가 안고 있어서 안된다 이런 생각이요 또 앞으로 小委活動이 별로 없을테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證人이 안나올테니까 聽聞會하지 말자 이러한 論理展開나 유사한 論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趙昇衡委員 지금 저희들이 聽聞會 이번에 하는 事件 8件外에 더 調查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決議가 없는 한은 앞으로 어떤 事件을 小委員會에 맡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金委員 提案대로 그런 幹事會議에 어떤 小委活動에 대한 制限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姜信玉幹事 뭐 양해를 해주시면...

○姜信玉委員 예. 양해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양해해 주시면 滿場一致로 지난번 小委調查活動方法이라고 해가지고 4黨

幹事が 합의를 해서 우리 全體會議에서 決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訂正해서 金令培委員이 지금 動議한 것을 특별한 異議가 없으면 滿場一致로 可決해 주지요? 좋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動議가 可決되면 第3小委 證人採擇의 件은 여기에 上程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金令培委員의 動議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좋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13일부터 우리 委員會가 聽聞會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밤잠 주무시지 않고...

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盧委員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委員長님! 조금 疑問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油印物에 되어 있는 이 證人이 오늘 特委 全體會議에서 決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대로 아까 4인의 委員에게 委任된 것인지를 알른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委員長 李基澤 지금 油印物에 不實企業關係 證人은 여기에서 決議를 하고 人權非理證人採擇部分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네 사람 委員에게 맡긴다 그렇게 됐습니다.

○盧武鉉委員 本委員이 미처 조금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중간에 發言해야 될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正式으로 이 決議內容에 대해서 금방 무슨 修正案을 제출하거나 하여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全體 證人중에 16日和 17日의 證人으로서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대체적으로 3月13일부터 17일까지는 주로 不實企業을 뭐 被害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引受者들이 證人으로서 채택되어 있는데 引受者側證人을 보면 모두 실질적으로 어떤 系列企業群의 總帥 實所有者가 證人으로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독 14日에 韓國火藥「그룸」과 17日에 동진제강에 관한 한 이것을 實權者가

아닌 소위 專門經營人 月給을 받고 實權者의 命숨에 따라 움직이는 專門經營人으로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 決議가 되어 버렸다면 지금 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國會가 어떤 議決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客觀性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公正性이 있고 한점 누구에게도 疑惑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지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된 것이 합리적이나 하는 점에 관해서 幹事會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납득할 만한 解明이 있다면 그래서 납득이 되면 양해하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個人의 委員으로서 異議를 제기하고 修正動議案을 제출할 權利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주장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알겠습니다.

盧委員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委員長이 아는 부분도 있고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證人採擇은 但書에 앞으로 追加證人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방금 지적한 문제와는 追加證人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3黨幹事會議에서 協議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니까 오늘은 盧委員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問題點으로만 제기를 하고 다음 追加證人으로서 이렇게 再考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問題提起만 하시고...

○盧武鉉委員 예. 좋습니다. 本委員으로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을 충분히 檢討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通過된 決議案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異議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차후 聽聞會의 進行過程에서 좀 더 調查·檢討한 후에 항상 本委員會의 決議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決議로서 일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혀 둡니다.

○委員長 李基澤 알겠습니다.

○趙昇衡委員 盧委員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아까 實勢者들이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30日 31日 追加證人 聽聞會할 때 그때에 거기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

고 있는데 아까 委員長께서 조금 애매한 말
씀을 하시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
드시 하기로 그때 했지요?

○委員長 李基澤 그럼요. 했습니다.

○金 炫委員 저는 이 문제하고 조금 동떨어
진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小委로 각자 하다보니까
잘 안되는 점이 있고 특히 民正黨의 불참에
의해서 小委를 소집해보려고 해도 거기에 모
였다 딴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全體會議에
좀 나와 달라고 해도 거기에 모였다 과거에
하던 일을 가지고는 좋은데 새로 하는 일은
民正黨은 안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
다 보니까 2小委가 지금 소집을 했을 적에
따로따로는 열심히 찾아가서 모여달라고 해도
黨에서 특별한 指針이 없기전에는 모이기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깐요. 오늘
제가 委員長님에게 건의드릴 것은 내일 열時
에 2小委를 전체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한번
공식적인 것으로 해주시면 5黨이 참여를 안
해도... 저희들이 與黨과 그전 해오던 小委만
은 최대한도로 하기로 하는 것을 公表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조금전에도 小委活動部分은
小委에 全權을 맡기다시피 했습니다마는 委員
長으로서 그런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하
여튼 第2小委員長이 소집하고 會議進行하는데
필요하다면 옆에서 그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됐지요?

○金 炫委員 지금 與黨이 나와있지를 앓고...

○委員長 李基澤 與黨에게도 委員長으로서 出
席하도록 권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日程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감사합니다.

(11時56分 散會)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出席委員

李 基 澤	金 令 培	朴 相 千
梁 性 佑	李 東 根	林 春 元
趙 昇 衡	崔 洛 道	姜 信 玉
金 東 圭	金 東 周	盧 武 鉉
沈 完 求	金 鍾 植	金 炫
鄭 一 永	崔 戊 龍	